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2호 현대불교 2008년 8월 13일(음력 7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17

자기 마음을 밝히면 조상과 돌아다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후손이 고통 받는 문제

문 조상님들 중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들어 꿈에도 자주 보이고 집안 식구들이 기운을 못 차리고 힘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백중 때 조상님을 위해서 등을 밝히고 정성을 들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해서 등 접수도 하고 절에 참석해서 정성도 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님들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는지요?

답 여러분은 혹시 덕산 스님이 떡 파는 노파에게서 “스님은 어느 심에 점을 찍으시려오?”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어떤 분이 내게 ‘삼세심 불가득(三世心不可得)’이 뭐냐고 묻더군요. 스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겠느냐고 하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말로 해서 대답을 듣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뜻이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날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데 이 도리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게 그대로 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덕산 스님의 수행이 좀더 익었더라면 “내가 어느 심(心)에 먹는가를 보고 싶거든 떡이나 가져 오시게.” 하고 말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느 심에 내가 먹는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 드릴 테니 떡이나 가져오시오.”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덕산 스님은 여여하게 대답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또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이라고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니 방금 전이니 하는 것도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 금방 과거가 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 우리 몸뚱이에서 정맥 동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 숨쉬는 것, 한 발짝 떼어 놓았으면 또 한 발짝 떼어 놓는 것,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는가? 그걸 실질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말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말로만 알았지 실천을 통해서 감응이 되질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잡히는 것은 어느 틀에 잡혔는지도 모르고, 잘못되면 또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니까 ‘이거 조상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부모가 잘못했나, 남이 뭘 어떻게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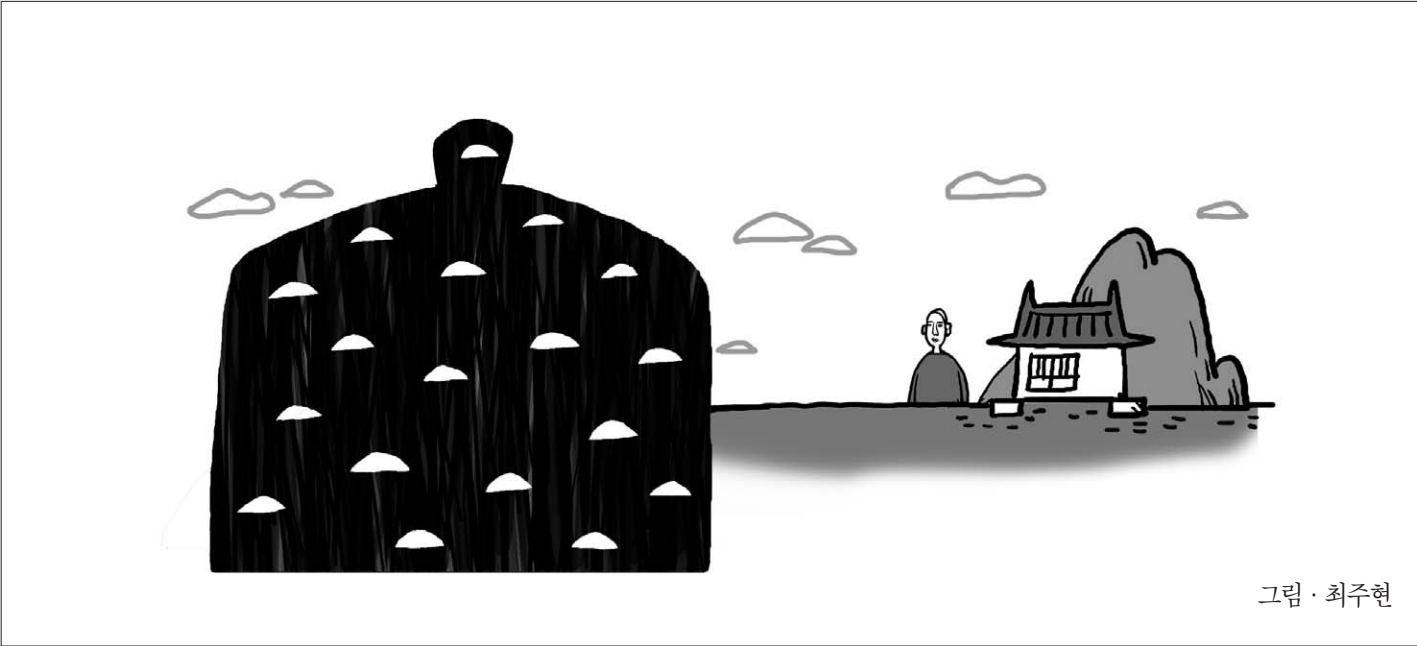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못했나. 그놈이 그렇게 해서 잘못됐지.’ 이러곤 이것이 다 남의 원망이고 증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오나 원망을 왜 하게 되느냐. 그것을 각각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옮겨 못 보고, 나쁜 것도 옮겨 못 보고, 좋은 것도 옮겨 못 보고 진리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증오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생각 한생각을 잘못하는 게 그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증오하고 자기 멋대로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과롭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아주 속상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꼬부장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이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공을 던지지 않았다면 공이 튀어오지 않듯 자기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짚는 대로 바로, 과거가 따로 없이 미래가 따로 없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어떠한 것도 그 오온(五蘊)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볼 때는 다섯 개가 이렇게 뚜렷하지만 주먹을 쥐었을 때는 한 주먹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한체상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바로 한체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체상, 저렇게 살아도 한체상이라면 좀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

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불심을 좀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오를, 영원한 오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촛불제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닦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

고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돌아다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서류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가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고, 바뀌지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적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육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합니다.

자식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 저는 「한마음」이라는 책을 읽어 보고 큰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5월 14일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애가 굉장히 놀라고 심기가 많이 불편해 가지고 사경을 헤매 정도였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너 봤는데 병명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인(因)으로 인해서 자식이 받는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답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금은 금대로 놓고, 또 쇠는 쇠대로 놓고, 은은 은대로 놓는다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두 모아 놓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얽어넘긴 겁니다. 보는 사람도 그런 죄, 또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하고 그 당하는 사람하고 돌아다니는 까닭입니다. 부딪치는 거는 강동이기 때문에 부딪칩니다, 돌아다니게,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모든 것을 거기가 맡겨 놔라, 이 우주 천하에 직결돼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돼 있는 것을 알고 그 직결돼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가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 병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데다가 다시 놓아라, 바로 네게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고쳐라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놔라 이겁니다. 너만이 고칠 수가 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쳐라 이거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오다가 얽어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고 뺏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지어 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가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 인과응보로 졌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또 업보가 많고 자기가 저지른 많은 일들의 인과응보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몸뚱이 속에, 대뇌 속에, 이런 모든 생명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공급을 해 주고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다 이런 겁니다. 이걸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공행(實踐躬行)하는 데에 우리가 참, 노력을 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럼 일체 만법, 작든지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내가 다

18면으로 계속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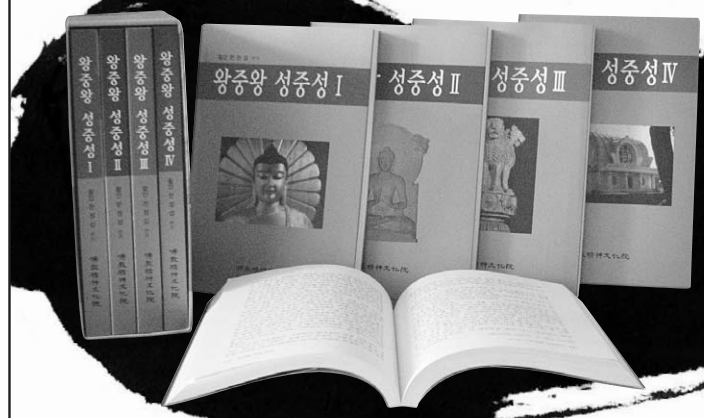


●화란 스님

‘왕중왕성중성’ 王中王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화란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화란(한정심)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 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신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큰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문의 및 안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 제 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좌선실수·묵언·지관경수·생활선·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큰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